1년만에 꼴찌서 1위로…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시책 살펴보니

학교-업체 유착 '관행'부터 끊었다

3단계 청렴교육…교직원 의식 바꿔

내·외부 2중 감사 시스템 연중 가동

지난 2008년 광주시교육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분야를 비롯해 타 시·도 교육청보다 높았으나, 현장학습 분야 등 외부 청렴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의 성적을 올린 '실력 광주'의 명성에 흠이 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곧바로 자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으론 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시책을 벤치마킹해 부패요인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에도 주력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009년도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광역시교육청 중 2위를 기록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 1회 청렴교육 수범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09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매우 우수'라는 최상위 등급을 받아냈다.

요즘 광주시교육청에는 타 시·도에서 청렴 시책을 배우기 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추진된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시책을 들여다 봤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원인 파악=2008년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의 성적을 받아든 광주시교육청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교육청 내부에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낮은 외부 청렴도의 진실 여부를 조사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체험학습 업체는 물론 학교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불만사항을 수집했다. 이들이 털어놓은 불만 중 대부분은 학교측의 고의성 보다는 '관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잘못된 것만은 확실했다.

시 교육청은 수십차례의 내부 회의와 사업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라=시 교육청은 현장학습 분야 업체 관계자와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부패척결 제도 개선 방안으로 12개 과제를 수립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직원의 청렴도 의식 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청렴으뜸 나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선 교직원을 대상으로 3단계 청렴 교육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청렴교육 전문과정을 마련해 청렴 전문 교원을 양성하는 한편 청렴 학생 교육에도 주력했다. '미래 청렴 꿈나무 육성'을 주제로 정하고 청렴 교재인 '푸름이와 놀자'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교재는 교과부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특히 최근 광주를 방문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책자가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시 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연중 수시로 청렴도 감사 시스템을 가동, 내부적으로 비리를 적극 감시·예방하고, 외부적으론 고객만족도 모니터단을 구성해 내·외부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청렴도 향상 정책은 진행형=시 교육청은 2009년 청렴 정책을 바탕으로 보완·발전 방향을 추가한 2010년 청렴도 향상 시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턴 초·중등 교장·교감·행정실장 모두가 청렴교육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외부 기관과 연계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가했다.

유영근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교육계는 어느 곳보다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곳이지만, 교원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가끔씩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광주의 모든 교육자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하고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과기원 졸업식 광주 과학기술원의 2009학년도 학위수여식이 17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원내 오룡관 대강당에서 선우중호 과기원장 등 교직원 및 재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석사 132명, 박사 47명 등 179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방과후학교 봉사단 광주과기원 발대식

광주과학기술원은 18일 오후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총장 및 주요보직자, 방과후학교 교사,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IST 방과후학교 자원봉사단 발대식(명칭 : 지스트 배움마당)'을 가졌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은 과기원 소속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 광주시·북구청 등에서 추천받은 13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120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가르친다.

광주과기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외에도 소외지역 초등학교 10개교에 과학도서·과학기자재 기증, 광주첨단소재 초등학교 대상 GIST 총장상 수여, 매월 1회 일반인 대상 GIST 과학스쿨 개최, 아동복지시설 3개기관 소속학생 160명 문화행사 초청 등 지역협력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삼국지 현장을 찾아서

조선대 학생 20명 '명저 해외견학'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인 '삼국지'의 현장을 찾아 해외견학을 떠났다.

조선대 학부생 20명(지도교수 오문석 국어국문학과)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박6일 동안 '삼국지' 영웅들의 활약 무대를 답사하는 '제1회 명저해외견학 삼국지, 그곳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먼저 3세기 조조가 다스리던 위와 유비의 촉나라 국경지대였으며,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중을 찾는다. 한중은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러갈 때 사마의의 20만 군대와 충돌한 곳으로, 제갈량이 숨을 거둔 곳이다. 이곳에서 제갈량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미엔현의 무후묘를 비롯해 위와 촉의 한중쟁탈전에서 제일의 목표였던 양평관, 제갈량의 좌상이 있는 무후사, 제갈량이 개척한 촉의 벼랑길 수송로 석문잔도, 제갈량이 바쁜 군무에도 잠시 틈을 내어 책을 읽으러 왔다는 독서대 등을 둘러본다.

견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4개 조로 나눠 삼국지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각조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개월간 조선대 중앙도서관이 선정한 명저 100선 및 권장 100선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평가 점수와 최종 인터뷰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토익 모의고사 치르고, 문화유적지 탐방하고, 봉사활동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용 위주로

단순 흥미와 단합 대회 성격이 짙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점차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하고 있다.

대학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전남대 사회과학대는 오는 23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토익 모의고사를 치른다.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들의 영어능력을 분석해 학기 중 맞춤형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신입생들의 영어실력을 끌어올려 해외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대 공과대는 22일부터 26일까지 수학, 물리, 화학 등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공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이정록 학장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대학 공식 행사인 만큼 신입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선대 글로벌법학과도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해남지역에서 문화해설사를 초청, 문화유적지 탐방과 체험을 실시한다.

동신대학교도 봉사활동을 겸한 이색적인 행사를 마련했다.

동신대는 학사 행정 정보와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등 대학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선후배·교수와의 만남을 비롯해 헌혈 등 봉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0 국제학술대회

전남대 법학연구소(소장 송오식) 동아시아법센터가 주관하는 '2010 국제학술대회'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학전문대학원 601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환경하에서의 환경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국·중국·일본의 학자와 실무가들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학술적인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산전양 교수(일교대), 대총직교수(조도전대), 중국의 막우천교수(인민대), 왕원명교수(청화대), 그리고 한국의 장신교수(전남대), 정훈교수(전남대)가 각 분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印尼 구강의료봉사

교수·학생 9명…산학교류 활동도

조선대학교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기술혁신센터(센터장 강동완)와 의료용 임플란트 네트워크 구축사업단(단장 안종모)이 인도네시아에서 구강의료봉사와 산학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동완 센터장, 황호길 치과병원장, 손미경 교수와 전공의 2명, 학생 등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역민을 대상으로 구강의료봉사를 펼친다. 이와 함께 하사누딘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산학교류, 인적 교류, 의료교육 관광 추진을 협의한다. 황호길 병원장과 손미경 교수는 하사누딘 치과대학에서 신경치료와 보철에 대해 교육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